

## 여러분께 드립니다.

2009년 11월 뉴스레터

이대우 드림  
ALM Ministry  
6694 Palo Verde Place  
Rancho Cucamonga, CA 91739  
909-803-0491

### 구라파 여행

오랜만에 여러분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드린 후 몇 개월을 보내면서 편지를 못 쓰고 있다가 여행 중 이런 저런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늘 2011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2011년이 오기 전에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딸들과 손주들을 한번 더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맞아 지난 9월 15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이 Switzerland에 살다가 Sweden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스웨덴 수도인 Stockholm 근교에 살게 되어 10일간 Sweden을 방문하면서 Stockholm을 관광 배를 타고 관광하고, 또 17세기에 침몰한 군함(軍艦)을 350년 후에서야 바다 속에서 인양했다는 스웨덴의 역사적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나머지 10일간을 Switzerland에서 보냈습니다.

두 나라를 자연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인구밀도로 보면 Switzerland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하는 인상을 줍니다만 Sweden의 수도도 사람들의 왕래가 생각하던 것 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인상은 그 국민성이 “답백하고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대로 건축한 건물들은 곡선이 별로 없고, 전력을 전송하는 송전탑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보던 것들보다 자료를 덜 쓰고 검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스웨덴 가구점 “IKEA”에 가보면 될 것입니다. 가구들이 모두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을 여러분도 발견할 것입니다. 반면에 Switzerland의 건물들은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 국가의 동일한 점을 발견한다면 모두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광지를 방문하더라도 역사적인 자랑거리가 있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그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점이라 생각했습니다. 2011년에 그 찬란한 역사가 종결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스웨덴과, 스위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지만 그러할 기회는 없었고, 두 딸들의 식구 즉 손녀 손자, 사위들과, 딸들에게 2011년에 대하여 얘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또 한가지 두 나라에 동일한 점이 있다면 두 나라가 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신념을 양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살기 좋다는 설명의 첫째 조항이 “사회복지 시설과 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퇴직하고 늙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우선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노력이 있는 듯 합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만 해도 한국이 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대개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경제부흥이 널리 인정되었고, 과학 기술과 상품의 품질도 한국 산을 인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어 가는 일에 신경을 다 집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 되는 것에는 그 번성의 정점(頂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문명이 다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각각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하루아침에 그 종결을 본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문명이 지역적

이었으나, 21세기의 문명은 세계적입니다. 고대의 문명은 시간이 걸려 발전을 본 것에 비하여 21세기의 문명은 극히 단시일 내에 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컴퓨터(Computer) 과학이 몇 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 백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 전자시대(Electronic generation)

제가 1959년에 서울공과대학 3학년에 편입했을 때, 그 때 전자공학은 진공관을 사용하여 라디오를 만들 때였고, 진공관을 대처하는 반도체가 바로 발명되던 때였습니다. 그 후 근 10년 만에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방정식을 배울 때 교수님이 컴퓨터의 발명을 찬양하며 그 컴퓨터가 아니고는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을 10년이 걸려야 풀 것이라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10,000 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설치된 단 한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50년도 못 된 지금에는 그 큰 대학에 설치되었던 큰 컴퓨터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그리고 손을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각 학생들이 소유해야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인간들이 21세기에 와서 갑자기 더 현명해 진 것이겠습니까? 21세기의 문명에 도달한 발전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지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상을 주면서 찬양하지만, 세상의 모든 과학과 공학의 법칙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과학과 공학의 발전의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를 타고 세상에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백의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었고, 그 중 복음전파에 중심이 되어있는 언어는 영어이며, 이 영어가 세상에 통상(通常)어가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성경말씀의 뜻을 마침내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뜻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날짜가 기록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 때와 기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는 바는 지난 근 20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전파에 전력을 다 했지만 “**때와 기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1000번이 더 되게 거듭 예수님의 재림날짜를 찍어 왔지만 모두가 잘못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도서 8장 5절에 “**지혜자는 시기와 판단(심판)을 분별하나니**”라고 하신 것은 구원 받은 자들(지혜자)이 그 심판날 시기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조후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대(代)를 이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 가인에게 살인을 당한 아벨에서 시작하여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등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세기 말엽이 되면서 창세가 BC 11,013년에 이루어졌고, BC 4990에 노아의 홍수가 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BC 1447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비로써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8장에 “**일곱째 인을 때실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곱”은 마지막을 지적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인봉 해 두셨던 성경말씀의 뜻을 알게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명 하셨습니다(마 24:15).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8:27)**

이 구절은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날 가공할 사건을 알게 되고 기절한 사실이며,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봉함 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이 구절은 “**이 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알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글**”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전체이며, 이 성경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일세기 말엽에 완성하시고, 모든 기독교인들과 또 학자들이 읽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시고 정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말세에 가서야 비로써 성경을 읽을 때 알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말세에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경 외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성경 마지막에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석학(碩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인봉 된 책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3년 반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배웠던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4-45)**

우리에게 인봉 되었던 “책”, 성경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

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 5:1-5)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계 8:1-2)

이 구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이 인봉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책의 인봉을 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일곱 인**”은 완전하게 인봉 되었다는 뜻이며, 위에서 읽은 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그 마지막 인봉을 떼실 때, 즉 종말 시기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 숫자 7

숫자, 7에 대하여 믿는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지적하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때에 종결을 지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부터 새 안식일 일요일이 시작된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을 희랍어원문으로 읽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7일인 일주일(一週日)간의 반복이 창조 직후에 시작하여 세상의 종말(2011년 10월 21일)이 이를 때까지 인간이 적용하도록 하였고, 숫자 7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제도를 성경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절기와 연결을 하였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성경역사에 기록된 모든 재난을 말세에 우리가 겪게 될 재난과 비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상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 때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그 당시의 인구가 몇 명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우리와 같이 책을 읽거나 방송을 들을만한 혜택이 전혀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역사를 기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가면 마지막 환난(마 24:21, 계 2:22)을 겪을 세계인구가 70억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숫자 7을 세상 인구에도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세상의 종말:** 노아 홍수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짜를 계산하여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하신 것과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하신 것도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비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숫자 7을 말씀하셨고,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3-4)

“기롱(譏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기롱 한다기보다도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비웃는 신학자이며, 성경학자이며,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실상 홍수가 내린 노아 600년 2월 17일 까지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홍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 지은 방주의 크기로 보아서 노아는 세상의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성경에 노아를 “전도자”로 부른 것이, 노아가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노아는 여러 번 설교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 하였으되”**(벧후 3:5-6)

**숫자 7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말씀을 세상이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지구의 창조가 억만년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과학자들의 학설에서 오는 것이지만,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과학자들 중에는 억만년이 된 지구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그 종말이 2012 12월이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7)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하신 점에 유의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연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속에(2000년에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전시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학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말씀과도 같이 지구가 불로 망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노아 때의 홍수와 말세:**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라고 하실 때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건을 말할 때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장자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위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유의하여 읽어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를 천년으로, 또 천년을 하루로 기록한 성경 내용이 있으니 각별하게 유의하여 읽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종말을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도록 6-7절에 말씀하셨으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시 살펴 보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7이편---비가 내려**”라고 하셨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노아 600년 2월 17일로 기록하셨습니다.

노아 600년은 BC 4990년이며 AD 2011년은 노아의 홍수 후 7000년이 됩니다. 성경의 날짜의 기록은 7000년이라고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365.242199일(정확한 일년) X 7000을 말하며, 그날이 바로 2011년 5월 21일이 되며, 또 그날 유대달력의 2월 17일이 됩니다. 이 7000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강조하시어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고 위 구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숫자 7을 통하여 마지막 환난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야곱의 대환난이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 “**일 곱해 풍년과 일 곱해 흉년**”(창 41:29-30)입니다. 애굽을 요셉이 실지로 통치함으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살아 남게 되는 눈물겨운 얘기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환난의 성격을 알게 하시도록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70년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20여 년을 바벨론의 점령 아래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잡혀갑니다.

**대환난 기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환난이 야곱의 환난 7년=84개월, 이스라엘의 환난 70년=840개월과 1대 1로 비교가 됨을 구약 선지서(先知書) 들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짜를 통해서도 그 유사점을 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환난은 23년이며, 이 23년은 2300일과 6100일(=8400일)로 나누어집니다.

야곱의 대환난 기간:	7년 = 84개월
이스라엘의 대환난 기간:	70년 = 840개월
우리의 대환난 기간:	23년 = 8400일

**이스라엘과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놀라운 사실 중 한 얘기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쓰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배역(背逆)한 역사며(겔 33: 11, 20) 또 멸망을 당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읽는 동일한 구약성경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막아 버려 구약성경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한 예언 속에 이스라엘 국가를 지적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피는 것**”(마 24:32)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적하셨습니다. 1세기 에 국가를 잃은 이스라엘이 20세기, 1948년에 와서 독립하였고, 하나님께서 교회시대가 끝이 난 1988년까지 40년간 행어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e-mail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온 구라파에 아랍족속들이 이민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수년 후에는 구라파 인구의 25%가 아랍인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국은 아랍 국들로 둘러 싸여 사면초가(四面楚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해도 2011년에 그 종결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감지(感知)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D 1988년은 세계 창조가 13000년이 되는 기념일이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국에게 또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나간 해 입니다. AD 1988년은 교회시대

가 끝난 해이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때실 때**입니다. 2300주야가 AD 1988년에 시작하고 끝나는 해는 1994년이며, 이 해는 회년(Jubilee)이며, 회년은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년인 BC 7년에 탄생하셨고, 1994년은 40번째 회년입니다.

**늦은 비와 마지막 추수:** 1994년 회년은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 6100일간의 추수가 시작되며, 이러한 전도사역이 더 이상 기성교회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님은 성경은 지적합니다. 기성교회는 각기 인간이 세운 교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엘리야(말 4:5)를 통하여, 전자문명을 사용하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엘리야는 어떠한 유명한 선지자라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성 선교기구가 아니고, 성경말씀을 성경말씀으로 찾아내는 전도자들입니다. 숨겨진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들에게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믿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칭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확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멸망 당한 모든 세상사람들은 멸망이 도적과 같이 온 것입니다(마 24:37-39).

재난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기의 백성에게 미리 낱자를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루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작하여 1500동안 쓰셨고, 약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그 내용을 아무도 변경할 수 없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 2000년 동안 그 낱자의 기록을 알지 못했던 것은 구원받은 월등한 성경학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며, 일곱째인 이 인봉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 7과 요한계시록:** 숫자 일곱은 요한계시록에 40번을 사용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하셨습니다.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며, “**안팎으로 썼고**”라고 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인봉을 때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의할 점은 그 인봉을 때시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일곱 가지 인봉을 때 주신 것입니다. 큰 환난시기의 사건을 요약하면;

1. 1988년 5월 21일(교회시대의 오순절이 1955번 지난 후 오순절)에, 23년(8400일)의 대환난이 시작되었고, 사단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때입니다.
2. 1994년 9월 17일(장막절)이 환난시기의 전반, 2300일이 끝나면서 세계적 선교를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늦은 비**”(슥 10:1, 약 5:7)가 내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3. 2011년 5월 21일은 정확하게 마지막 환난 날 23년이 끝나는 날이며, 큰 환난이 끝나고 택하신 백성은 휴거를 당하는 날입니다.
4. 2011년 10월 21일은 5월 21일부터 153일이 되는 날이며, 이때에 세상을 불로 완전히 멸함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전갈에게 해를 당하는 것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계 9:10)**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 마지막 환난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것

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9-14)

**택하신 백성은 파수꾼이다:** 여러분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강림이 결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살전5:2-4).

“**깨어있어; Watch**”(마 24:43)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쓰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아주 미약하며, 이 Watch라는 단어는 파수꾼(watcher)의 역할을 말하며 (겔 33:1-7), 구원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파수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참 파수꾼은 진실한 성경학도를 지적합니다. 사실상 멸망이라는 거대한 적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천재지변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 박사들은 큰 혜성이 어느 때고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예측은 사람의 마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렘 4:20, 겔 7:25-26, 살전 5:3)이라는 적이 2011년 5월 21일에 온다는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의 임무를 여러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2011년 5월 21일이라는 날자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잠꼬대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이 날짜는 성경에 너무도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큰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그 기간에 지켜야 할 행사를 자세하게 명하신 것은, 명령을 받은 21세기의 파수꾼들이 적을 식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파수꾼의 임무를 기쁘고 즐겁게 수행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 2011년 5월 21일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하실 연대표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와 같이 과감하게 말씀 드린 날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다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Adam When?, Harold Camping 1974년
2. Time has an End, Harold Camping 2005년
3. The Perfect Harmony of the Numbers of the Hebrew Kings, Harold Camping 1974년
4. 가라지는 먼저 거누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대우 편집, 2006년
5. First Principles of Bible Study, Harold Camping 1986년

